



즉시 배포용: 2016년 1월 6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수천 채의 뉴욕시 아파트를 렌트 법규에 적용되도록 돌리려는 사업을 출범시키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대 50,000채에 달하는 불법적인 규제철폐 아파트를 렌트 법규에 적용되도록 돌려 수천명의 입주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물주는 J-51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법과 반대로 자신들이 렌트 법규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재등록 서한을 통해서 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제공해야 할 저렴한 주택을 입주자들에게 주지 않으려 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임대 안정화에 기여하고 모든 뉴욕주민들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깔끔하고 저렴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뉴욕 법원들은 J-51 혜택을 받는 날에 임대 안정화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임대 안정화 아파트로 등록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른 이 활동은 약 50,000채의 아파트가 렌트 법규에 적용을 받고 입주자들이 임대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에 따른 연간 갱신 임대 및 렌트비 인상을 포함해 임대 안정화 법과 법규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건물들의 약 절반 정도가 36채 이상이며, 그 중 절반은 36채보다 더 적은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맨해튼의 2,000여채 건물들, 브롱스의 500여채 건물들, 브루클린의 800여채 건물들, 퀸스의 700여채 건물들, Staten Island의 20여채 건물들이 임대 안정화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HCR(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James S. Rubin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임대사무국과 주지사의TPU(Tenant Protection Unit)는 렌트규제법과 법규가 준수되고 아파트들이 기관에 정식 등록될 수 있도록 갖가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 J-51 재등록 사업은 입주자들을 보호하고 임대인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 활동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뉴욕 HCR은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렌트 법규 시스템을 벗어난 아파트들을 파악하고 이들 아파트를 J-51 세액 수정을 받는 아파트들과 상호 참조하였습니다. J-51 세액 수정과 관련해 이 서신을 받는 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재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다 청구금액에 대해 3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주 HCR의 J-51 재등록 사업은 12월에 있었던 [발표](#)에 이은 것으로 HCR의 TPU는 뉴욕주 법무장관 및 뉴욕시 주택보존개발(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과 협력하여 코압/콘도 개조를 신청해 421-세금 우대 혜택을 받았던 약 200채의 건물에게 렌트 규제 임대 계약을 입주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를 HCR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